Meritz Financial Daily

| 2025. 11. 20 (Thu)

meritz 메리츠증권

금융 Analyst 조아해
02. 6454-4870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02. 6454-4905
kunhee.kong@meritz.co.kr

News

홍콩 ELS 과태료 윤곽...4대은행 2000억 유력
매일경제 https://zrr.kr/ntR376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건수'가 아니라 '판매 회차'로 유력하게 검토

4대 시중은행은 5년간 총 3233회에 걸쳐 홍콩ELS 상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파악... 회차별로 7000만원씩 과태료 부과 시4대은행의 총 과태료는 2200억원가량으로 예상

구윤철 "AI·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 가능"
뉴스1 https://zrr.kr/s3qXln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공지능(AI) ·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 필요하다면 '금산분리 완화' 문제도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다만 구 부총리는 "당장 금산분리 완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부작용을 막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면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임

예금금리 3%대로 오르자 예테크族 몰려…이달 들어 예금 8兆 넘게 늘었다
아시아경제 https://zrr.kr/DFAj6Z

예금금리가 3%를 돌파하면서 이달 들어서만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8조원 이상 증가

이 같은 현상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고채와 은행채 등 중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

지점 폐쇄 대신 출장소 전환…은행권 비용 절감 고육지책
서울경제 https://zrr.kr/LVay6u

국내 시중은행 점포 5곳 중 1곳은 직원 수 4명의 출장소... 은행 입장에서는 출장소 전환 시 인건비 등 운영비를 대폭 감축 가능

은행의 점포 폐쇄 요건이 까다로워지자 기존 지점을 출장소로 축소 · 전환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

첫 IMA 사업자에 한투·미래에셋… 이르면 12월 상품 나온다
국민일보 https://zrr.kr/ea0l5K

예 ·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서 원금 지급을 사실상 보장한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이 다음 달 제도 도입 8년 만에 첫선을 보일 예정

한국투자증권은 첫 상품으로 연 4~4.5% 수준의 목표수익률을 제시한 안정형 상품을 선보일 방침이며, 미래에셋증권은 실적배당형 상품을 1호 상품으로 골라 차별화를 시도할 예정

'전략' 따라 IPO 성적 엇갈린 미래에셋·KB증권
머니S https://zrr.kr/4kdsOT

올해 IPO 주관 실적에서 미래에셋증권은 총 14개 사의 IPO를 주관하며 건수 기준 1위를, 공모 금액 기준으로는 KB증권이 2조821억9800만원을 달성하며 1위를 기록

KB증권은 LG씨엔에스, 대한조선, 명인제약의 IPO를 잇달아 주관,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서울보증보험과 달바글로벌을 제외하고 대부분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살짝 스쳐도 MRI, 정비는 부르는게 값…보험금 줄줄 샜다
매일경제 https://zrr.kr/oOQsg4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는 데는 보험료 인하뿐 아니라 일부 병의원, 정비소, 고객의 도덕적 해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

병의원에서 차보험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 여기고, 정비소에서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고, 고객이 자기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다 치료와 정비에 이의제기하지 않는 관행 등

기본자본 K-ICS '30%냐 50%냐'…출발선·완화조치에 업계 촉각
머니투데이 https://zrr.kr/gHYpej

금융당국은 기본자본비율 규제 도입 첫해 적용 기준을 30% 또는 50% 중 어디에서 출발할지와 향후 상향 속도를 검토 중

금융당국이 기본자본비율을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예고한 만큼 출발선과 상향 속도에 따라 자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

'금가분리' 손질 나서나…네이버·두나무 합병 청신호
한국경제 https://zrr.kr/NcK6qZ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합병이 이달 말 양사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

양사 통합 논의에서 '금가분리'(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분리)가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시사하며 합병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IPO 추진
이데일리 https://zrr.kr/q6JqBe

크라켄은 미국에서 비공개 형태(confidentially)로 IPO를 신청

크라켄은 미국 기반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으로, 비트코인과 이더 등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며 EU 고객을 대상으로 토큰화된 주식 거래 서비스도 제공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